

## CEO는 냉 · 온풍기

최고 경영자는 어떤 마음가짐과 전략을 가지고 직원과 회사를 이끌고 냉정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 창업주의 오너십과 전문경영인의 리더십이 둘 다 겸비되어야만 최고경영자로서 CEO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카리스마가 넘치는 오너십은 창업주가 흔히 갖는 것으로 비즈니스 전투에 능하며 회사경비 절감에 남다른 애착을 보이며, 자신과 회사를 동일시 한다. 그래서 냉정한 냉기경영을 한다. 추위에 대비하는 능력이 있으며 추진력과 결단력이 장점이다. 회사의 기반을 닦는데 무척이나 어려움을 겪고 현재의 기업을 만든 장본인이므로 스스로는 완벽하다고 생각해 직원들이나 남의 의견을 듣는 것 보다 자신의 고집을 밀어붙이는 고집불통이 되기도 한다.

직원들과 원만한 커뮤니케이션이 어렵고 지시나 명령에 복종하는 태도를 원한다. 한마디로 직원들에게 “시키는 일이나 잘해” 스타일이다. 직원들을 조직의 톱니바퀴로 생각해 직원들에게 화를 잘 내거나 오너에게 반대의견을 펴는 직원들을 싫어한다. 전투에 있어 장군이 부하장수를 거닐 듯 다룬다. 거칠고, 냉정하고, 실력이 없으면 무시한다. 그러다 보니 일부 직원들은 회사를 떠나고, 조직에 대해 애정을 갖기 힘들다.

매출과 이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어제와 오늘이 거의 동일하다. 직원들의 복지에 신경을 덜 쓰고 “회의는 업무시간 끝나고 해” 라고 일축한다. 숫자에 강하며 아주 작은 부분까지 모두를 파악하려고 한다. 전투에는 강하나 부러지기 쉽고 사람과 일상에는 약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리더십은 창업주보다 전문경영인이 많이 사용하게 된다. 새로운 조직에 들어가서 술선수범을 보이고 사람들을 배려하여 사람들이 따르도록한다. 카리스마는 없으나 리더십을 통해 조직을 통솔하고 직원 스스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주력한다.

직원들을 키우고 따뜻함으로 조직을 만들어 나간다. 온기경영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의 온기로 주위를 훈훈케 하는 스타일이다. 하지만 비용에 대해서는 오너보다 덜한 감각을 가지며 매출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생각한다. 직원들을 꾸짖거나 몰아붙이지 않고 자신이 나서서 시스템 마련에 노력한다. 비용이 줄줄 새는 것을 쉽게 막지 못하고 직원들의 요구사항이 지나쳐서 원만히 이끌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문제가 있다.

오너십의 장점과 리더십의 장점을 결합한 냉온경영이 필요하다. 더울 때는 시원한 냉기를, 추울 때는 따뜻하게 감싸주는 온풍기의 역할을 해야한다. 최적의 경영온도를 만들어 주기 위해 카리스마와 리더십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창업주는 리더십을, 전문경영인은 창업주의 오너십을 배울 필요가 있다.

기업의 뜨거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보내려면 CEO십이라는 냉온경영이 해결해 주지 않을까?